

LOCAL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광양, 복지정책 안내서 배포 정책 370개...인덱스 기능 추가

광양시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생애복지정책 안내서(e-book)를 개정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생애복지플랫폼에 포함된 370개 복지정책이 생애주기별로 모두 수록됐다. 또한 지난해와는 달리 신규 복지정책 10개가 추가됐고, 생애주기별 인덱스 기능이 추가돼 복지정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책자에는 태이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복지정책(6장) 외에도 소상공인·영농인, 취업·창업, 보건·의료,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보훈대상자 등 분야별 복지정책(3장 7부분)이 함께 수록돼 있다.

광양시민이면 누구나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해당 전자책자를 내려받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생애복지정책 안내서 QR코드를 스캔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 하반기 중 종이책자 안내서를 제작해 신청인에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보성,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읍면 순회...맞춤형 서비스 제공

보성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들은 지적 관련 민원이나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많아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청 종합민원실은 6개팀의 담당 공무원들이 12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민원 접수 및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생활불편 신고 등 일반 민원 상담 △지적목변경, 토지 합병, 지적 재조사 등 지적 민원 처리 △개발행위, 건축·환경 인허가 등 복합민원 접수 △부동산, 토지관리 등의 토지 관련 민원 상담 등을 진행한다.

군은 현장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올해도 함평나비대축제 보러 오세요”

군, 내달 24일까지 입장권 사전예매 10% 할인판매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 주제 다양한 프로그램

함평군이 올해 함평나비대축제의 흥행과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입장권 사전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4월 24일까지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사전예매가 진행되며, 사전예매 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

간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나비대축제 입장권은 4월 24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전예매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는 '티켓링크'와 '네이버'에서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으며 사전예매 인증 시 함평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추천 행사도 진행 중이다.

오프라인 예매는 17일부터 함평엑스포공원 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관까지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입장권 사전예매 시 현장 판매가격 보다 10% 할인된 어

른 6300원, 청소년 4500원, 어린이·어르신·유치원생 2700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20인 이상 단체 구매 시 추가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어른과 청소년 입장권에는 각각 2000원과 1000원 상당의 쿠폰이 제공되며 축제장과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함평나비대축제 입장권 소지자는 입장 당일 함평자연생태공원과 양사·과충류생태공원 입장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올해 나비대축제는 황금박쥐(황박이)와 함께 하는 꽃과 나비의 세상을 표현하고, 살아있는 나비를 체험할 수 있게 실내·외 나비날리기 행사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 나비 먹이주기 체험 및 황박이 팝업스토어 운영, 황박이 포토존, 황박이빵 판매 등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도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상의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명예 문화관광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의 위상에 걸맞게 보다 특색있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했다"며 "많은 관광객께서 입장권 사전예매를 통해 10% 할인 혜택을 받아 부담 없이 현하고, 살아있는 나비를 체험할 수 있게 실내·외 나비날리기 행사 등을 확대

함평=최원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강진 백련사 동백꽃 '찰칵' 최근 열린 '제2회 강진동백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동백꽃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사진제공=강진군

영암, '농촌 왕진 버스' 2년 연속 운영

농식품부 공모 선정...2000여명 의료서비스

영암군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농촌 왕진 버스'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총사업비 1억4400만원을 들여 지난 12일부터 미암을 시작으로 서영·암농협, 군서농협, 영암농협, 남주농협 등 4곳에서 영암, 덕진, 도포, 군서, 학산, 미암 등 지난해 보다 1200명이 증가한 지역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 진료, 침술, 검안, 수액 등 전문적인 의료검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진에서는 광주맞은안과와 장흥통합의료병원의 검안과 수액 서비스,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동신대 광주한방병원과 협력해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승희 군수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펼치며 군민들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완도, 해양 환경 보전 20개 사업 추진

해양 쓰레기 수거·바다 지킴이 운영·어장 개선 등

완도군은 최근 '2025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 환경을 제공하고 어장 환경을 개선하고자 20개의 해양 환경 보전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읍·면을 대상으로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을 추진하며 총 9000여의 쓰레기를 수거할 방침이다.

'바다 지킴이 365 기동대' 운영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유·무인도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바다 환경 지킴이를 연중 운영해 해안가 정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외딴섬은 어장 정화선을 활용할 계획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총 75t을 수거했다.

이와 함께 군은 방치 선박 정리 지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 쓰레기 선상·육상 집하장 설치, 양식 어장 정화 사업, 골 폐차 집하장 설치,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지원 사업, 연안 정화의 날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해양 쓰레기 폐 포류류·플라스틱류 분리수거 및 다량 배출 시 읍·면 사무소 신고 후 업체 위탁 처리, 무단 투기 금지 등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 환경 보전 의식

개선 및 캠페인·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 쓰레기 처리비 자부담, 정화 활동,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는 어촌계에 대해 평가를 통해 '해양 환경 친화적 어촌계'로 지정해 쓰레기 처리 지원, 해양수산 사업 보조 사업자 선정 우대 등도 지원한다.

이외에도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해양 플로깅도 지원하며, 해양 환경 보전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는 수산 1번지이자 치유의 섬으로써 해양 환경을 깨끗하게 보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함평, 기능성 겉보리 '베타헬스' 연구 본격화

1.2ha 규모...대규모 상업적 재배 연결 목표

함평군이 건강 기능성 보리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능성 겉보리 '베타헬스'의 현장 실증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와 협력해 진행되며 함평군 내 '베타헬스' 계약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함평군과 농촌진흥청은 함평읍 대동면 월송리 일대 약 1.2ha 규모의 시험 포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며, 2026년에는 재배 면적을 30ha로 확장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연구로 건강 기능성 보리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대규모 상업적 재배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베타헬스'는 국내에서 육종된 보리 품종 중 베타글루칸 함량이 가장 높은 겉보리 일반 보리(4~6%)보다 약 2배 높은 14.2%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 베타글루칸은 천연 인슐린으로 불릴 만큼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의 군수는 "올해 실증 연구를 통해 '베타헬스'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내년에는 재배 면적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고기능성 품종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원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